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

김유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제1 저자)

하운섭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 * 이 논문은 제74회 국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2021.8.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21).

- I. 들어가기
- II. 옛말의 개념과 기능
- III. 옛말의 이해와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
- IV.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
- V. 마무리

I. 들어가기

우리는 ‘통섭(通涉)’의 시대를 지나 ‘통합(統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세한 차이를 괄호에 넣고 보면,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좀 더 넓혀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하는 식인데, “진리의 행보는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학문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Wilson, 1998/2005: 7)라는 당위적인 문장은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의 화두가 ‘문이과 통합’인 것도 이러한 시대적 추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 성마른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구획된 분과 학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제는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와 횡단을 통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의 해명을 도모해야 한다. 함께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전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으로, 국어사와 고전문학이 상호 교류와 협

력의 과정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보다 폭넓은 문학적, 문화적 감상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어사와 고전문학은 ‘옛말’이라는 안료와 ‘전근대’라는 캔버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 이를 바탕으로 한 두 분야의 협력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천의 상황들을 보여 주지 못했다.¹⁾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옛말의 표기와 문법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만큼 긴요한지와 같은 원론적인 문제부터 차근히 짚어 보고자 한다. 또한 옛말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과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실제의 국어교육 현장에 유의미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목표 및 지향과 관련하여 한두 마디 덧붙여 두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소통과 협력’을 내세운 제목의 의미에 걸맞게 문제의식의 발견에서부터 문제해결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사 전공자와 고전문학 전공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정확한 어석은 불안정한 해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어학적인 관점에서 보정한 후, 이를 다시 문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말하자면 국어사와 고전문학 사이의 부단한 대화와 길항을 통해 이 논문은 작성될 수 있었는데, 이는 본고의 성패와 가치가 ‘소통과 협력’이라는 실체적 행위의 수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두 분야 간 협력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박형우(2013), 양영희(2009)는 국어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전문학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 주는 데까지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데,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국어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석적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고전문학교육이 ‘정련된 자율’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어떤 측면에서 본고는 해석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근간의 문학교육 이론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훈고와 주석 위주의 메마른 고증학과²⁾ 과도한 지식의 남용이 고전문학교육 현장에서 횡행하던 때를 이미 알고 있으며, 현재의 문학교육은 과거의 문학교육에 대한 합당한 부정과 치열한 모색을 통해 어렵사리 찾아내게 된 통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적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어석적 오류에 기반한 그릇된 해석들마저 포함한다는 의미는 분명 아닐 터, 참신한 해석들의 목록에 오독의 결과까지 자리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대부분의 난해어구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교과서 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은 부정확한 주석이 학습자들의 원활한 작품 해석을 방해하는 일이지, 과도한 주석 위주의 문학교육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지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미진함을 보완하여 좀 더 완전한 미래를 예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³⁾

2) “메마른 고증학”이란 용어는 김홍규(2002: 308)에서 차용하였다.

3)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교과서 내 오류나 정보의 단순화 문제는 국어사 연구와 고전문학 연구의 협업의 정도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교과서가 개발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교과서 개발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본고의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 연구자이든 현장 교사이든 교과서 편찬의 주체들이 고전문학 텍스트를 다룰 때에 본고가 하나의 참조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옛말의 개념과 기능

우리는 먼저 국어사와 고전문학이 공유하고 있는 옛말이라는 안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옛말이라는 용어가 지닌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는 일이 국어사와 고전문학이 함께 발 딛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옛말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옛말의 개념

옛말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우리는 옛말이 지닌 중요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들에 주목하는 과정은 옛말을 보다 잘 살펴보는 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옛말의 개념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옛말이란 현대 국어 시기 이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말을 통칭한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해 현대 국어의 시작을 어느 시기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⁴⁾ 대략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는 구별되는 이전 시기의 우리말을 모두 ‘옛말’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4) 학자에 따라 갑오경장(1894)이나 20세기 초엽, 또는 1876년 개항 등 현대 국어의 시작 시기를 매우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중선(2000)에서는 현대 국어의 시작을 갑오경장(1894)으로 보고 이후 현대 국어가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제1기(현대 국어 형성기) : 1894년~1910년

제2기(우리말 공용어기) : 1910년~1945년

제3기(국어권 분단기) : 1945년~

전기(국어 재정립기) : 1945년~1960년대 중반

후기(국어 안정적 발전기, 분단 심화기) : 1960년대 후반~

현대 국어 이전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살펴보자.⁵⁾

- (1) 가. *본되 내해다마르느 (本矣吾下是如馬於隱) (9세기 <처용가>)
- 나. *염글이셔 (肥曰鹽骨眞 亦曰鹽骨易成) (12세기 『계림유사』)
- 다. 아랫 恩惠를 니저 브리샤 길 넓 사름과 ㄱ터 너기시니 나는 아버지 여희
오 느릭그에 브터 사로되 (15세기 『석보상절』)
- 라. 선침이 죽대 말 듣고 신위 밍 ㄱ라 노코 울오 혼되 비호던 사름의게 유무
헝여 알외니라 (16세기 『이륜행실도』)
- 마. 기피 스스로 설워헝더니 쏜에 늘근 사름이 ㄱ로되 설워 말라 사흘의 어
드리라 헝더니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바. 나귀 사름을 츠거든 사름도 나귀를 혼 발로 춤이 맞당터 아니헝니 우리
드라남이 무던헝다 (18세기 『오륜전비언해』)
- 사. 넷적에 보국과 법국이 서로 싸흘 제 보국 사름이 흥군헝는 곳에 던기선을
다 베플고 (19세기 『이언언해』)

(1)은 비록 각각 짧은 자료들이지만 현대 국어 이전에 세기별로 국어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가 단어는 물론 문법 요소 및 문장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1)로부터 옛말이 어떤 특성을 지녔던 언어였는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 보게 된다.

둘째, 한글로 기록된 고전문학 작품 속의 옛말은 주로 근대 국어 시기의 우리말에 해당한다. 문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15세기 중엽부터 시작해 16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이른바 ‘후기 중세 국어’라고 언급되는데,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고전문학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5) (1가)와 (1나)에서 보이는 ‘*’는 재구(再構 reconstruction) 형태를 표시한 것이다. 재구란 역사언어학에서 직접적으로 문증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과 간접적인 근거들을 통해 그 시대의 언어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을 말한다.

(2)가.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온 님 여희읍고

내 믅음 들 디 업서 냇⁷에 안자이다

저 물도 내 안 ⁸도다 우러 밤길 네⁹넋다

- 『청구영언』(진본) #17

나. 이바 니웃드라 山水求景 가자스라

踏靑으란 오늘¹⁰호고 浴沂¹¹란 來日¹²호새

아춤에 採山¹³호고 나조히 釣水¹⁴호새

- 정극인, 〈상춘곡〉(『불우현집』)

고전문학 작품의 창작 시기와 문자로의 정착 시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문제는 작품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2)의 작품들은 작가의 생존 연대를 고려할 때 중세 국어 시기의 언어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실제로 작품에 나타난 언어의 모습은 그보다 후대의 언어, 즉 근대 국어의 특성을 보여 준다.⁶⁾

조선시대 다수의 시가 작품들이 수록된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와 같은 가집에는 가집 편찬 이전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실려 있다. 여기에 나타난 언어 및 표기의 특성은 창작 시기의 것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가집 편찬 당시의 것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문학 작품들을 살피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근대 국어가 지닌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옛말은 이전 시대의 다양한 방언적 특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전체를 ‘국어’라고 부른다면 이 속에는 계층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옛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옛말을 보여 주는 자료들에 그러한 특징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문제이다.

6) (2가)에서 선어말어미 ‘읍’과 원순모음화를 겪은 ‘물’(<물>), (2나)에서 ‘니웃’(<이웃>)과 청유형 종결어미 ‘-새’는 근대 국어의 특성을 보인다.

(3)가. 天地도 넓도 넓고 日月 흥가흥다

羲皇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僊이 엇더던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송순, <면앙정가>([『잡가』(연민본))

나. 西山의 도들벗 서고 굴음은 느제로 낸다

비 뒷 무근 풀이 뉘 밧시 짓엇든고

두어라 츠레지운 일이니 밋는 대로 밋오리라

- 위백규, <농가구장>([『사강회문서첩』) 1수

(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문학 작품들에서 작가가 사용하던 말에, 또는 작품을 기록할 당시 해당 지역의 말에 남겨진 방언적 특징이 작품에 드러난 경우가 있다. 밑줄 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각각 전라도 담양과 장흥을 기반으로 생성된 (3가)와 (3나)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유되던 언어적 관습이 일정 정도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지점들은 고전문학 작품 속의 옛말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옛말 속의 방언적 요소를 통해 고전문학 작품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옛말의 기능

옛말이 단순히 현대 국어 이전의 말이라고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옛말의 진정한 가치와 더불어 옛말이 지닌 의미 있는 기능들을 간과해 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옛말이 지닌 기능들에 대해 국어 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문학과 현대 국어의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옛말은 국어가 지나온 역사의 증언자이다. 오랜 시간 속에서 국어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시간 속의 변화들은 국어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겠지만, 국어를 사용해 온 우리들은 그 모든 변화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기억 전체와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이지만, 옛 자료들에 남아 있는 국어의 파편적인 모습들은 국어의 역사를 증언해 주는 귀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 (4) 가. *벼리(星利) ㄹ ㄹ 고대 국어
 나. :별 ㄹ ㄹ 중세 국어
 다. 별[별 :] ㄹ ㄹ 현대 국어

(4)를 통해 우리는 장음을 지닌 현대 국어 ‘별’은 중세 국어와 고대 국어에서 각각 상성의 성조를 지녔던 ‘별’, 그리고 2음절의 ‘*벼리’였음을 본다.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복합 성조이며 중세 국어의 상성이 일반적으로 현대 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벼리(평거) > 별(상성) > 별(장음)’이라는 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언급해 볼 수 있다. 이때 옛말 ‘*벼리’와 ‘:별’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밝혀 준 역사의 증언자이다.

둘째, 옛말은 생생한 문학적 감성의 전달자이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달리 상징성과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러기에 문학의 언어를 다루는 것은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글보다도 문학작품들을 통해 국어가 지닌 최고의 매력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전문학 작품의 안료가 되는 옛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5)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정陽陽寺스 眞진歇헐臺디 고타 올라 안즌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귀야 다 보느다
 어와 造造化화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쫓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갓논 듯 白백玉옥을 못것논 듯

(5)는 금강산 진혈대에서 조망한 풍광을 리듬감 있게 묘사한 부분으로 운문과 산문의 성격을 함께 지닌 가사 장르의 묘미를 느끼게 해 준다. 시각적 비유의 상징성을 지닌 구체적인 단어들의 사용은 물론, 밀줄 친 부분들과 같이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언어적 표현은 옛말이 지닌 말맛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이처럼 옛말은 생생하게 표현된 우리 문학의 아름다운 감성을 오늘날 까지도 느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옛말은 현대 국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국어는 이전 시대의 국어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결과이다. 우리는 옛말의 존재를 통해 현대 국어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소이연(所以然)을 이해할 수도 있다.

(6) 가. 𪛗궐[𪛗] > 박궐

두디궐[𪛗] > 두더궐/두지궐 > 두더지

나. 조[粟]+쌀[米] → 조쌀 > 좁쌀 > 조쌀 > 좁쌀

몬 ㅅ- [用] + - ㄹ(관형사형 어미) → 몬쌀 > 몹쌀

(6가)의 ‘박궐’과 ‘두더지’가 각각 중세 국어 ‘𪛗궐’과 ‘두디궐’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현대 국어 ‘박궐’과 ‘두더지’의 구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⁷⁾ (6나)의 ‘좁쌀’과 ‘몹쌀’의 경우에도 단어 중간에 들어 있는 ‘ㅅ’의 존재가 중세 국어에서 어두자음군의 일부였던 ‘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6)의 옛말 ‘𪛗궐’, ‘두디궐’, ‘조쌀’, ‘몬쌀’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쓸모없는 퇴물’이 아니라 현대 국어를 비추 주는

7) 중세 국어 ‘𪛗궐’과 ‘두디궐’는 각각 중세 국어의 두 용언 ‘𪛗다[明]’와 ‘두디다[翻]’의 어간 ‘𪛗-’과 ‘두디-’에 명사 ‘궐’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른바 비통사적 합성어들이다.

‘반짝이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III. 옛말의 이해와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

고전문학 작품은 옛말들의 결합체여서 옛말에 대한 이해는 문학적 해석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⁸⁾ 물론 문학의 언어는 사회의 언어, 일상의 언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서(문혜윤, 2008: 3) 문학적 해석 작업이 옛말에 대한 어석만으로 완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문학어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은 해당 문학어의 축자적인 의미로부터 일단 출발한다.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면,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어학적 단위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문학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듯하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국어학적 지식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작품 해석을 위해 거치는 제반 과정을 국어학 연구자들에게 오롯이 요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사와 고전문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전문학 텍스트에 대해 국어사 분야에서는 주로 문장 이하 단위들의 어석적 정보를 담당하고,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이를 건네받아 작품 전체의 맥락이라든지 작품을 둘러싼 콘텍스트(context)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석의 유용성을 점

8)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논의 대상을 고전시가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그것은 어석의 결과가 작품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고전산문보다는 고전시가의 경우가 훨씬 크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전산문의 경우 한글로 기록된 작품들이 근대 국어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통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다층적인 언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고전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검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어석이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어석을 적용한다고 할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해석적 선택지는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은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

III장에서는 정철의 〈사미인곡〉, 주세붕의 〈오륜가〉, 고려숙의 〈청산별곡〉 등을 범례적 일반형으로 삼아 상기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이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비롯한 제반 학습도구들에 빈출하는 정전급의 작품들인데, 이는 곧 해당 작품들의 어석과 해석에 관여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술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들은 적지 않은 정도의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바, 본고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이 좀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되기를 바란다.

1. 해석적 오류의 교정

교과서를 비롯한 제반 학습도구들에는 부정확한 어석이 해석적 오류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종종 보인다.⁹⁾

9) 본고에서 참고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저자	서명	출판사
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미래엔
이승원·유성호·차충환·김한식·김철희·김형수 외(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신사고
정재찬·엄태웅·신현암·이승철·조형주·남궁민(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지학사
최원식·박중호·곽기영·박수연·박창현·서경원 외(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창비교육
한철우·박호영·이상구·선주원·박신영·이준현 외(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비상교육

(7)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分이며 하날 모를 일이런가

나 흐나 점어 잇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평生싱애 願원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 정철, 〈사미인곡〉(이선본)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 중 일부이다. 이 작품이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언을 요하지 않을 터이나, 그 비중에 부합할 정도로 무결하게 소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 근거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1행의 ‘삼기실 제’와 4행의 ‘노여’, 6행의 ‘외오’이니, 해당 부분에 대해 현행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표 1〉 〈사미인곡〉의 교과서 어석

	1행 ‘삼기실 제’	4행 ‘노여’	6행 ‘외오’
방민호 외(2019)	생겨날 때 (태어날 때)	다시, 전혀	외로이
정재찬 외(2019)	생겨날 때 (태어날 때)	다시, 전혀	외따로 (외롭게)

먼저 1행의 ‘삼기실 제’에서 ‘삼기다’는 ‘생기게 하다’와 ‘생기다’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서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표 1〉에서 보듯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 중 ‘생겨날 때’, ‘태어날 때’와 같이 후자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현행 교과서의 어석은 존칭 선어말어미 ‘-시-’의 존재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1행의 마지막 음보에 쓰인 ‘삼기시니’까지도 고려해 살펴

보면,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자신을 ‘삼긴’ 주체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주체의 지위는 화자보다 높다. 요컨대, 1행의 ‘삼기다’는 ‘생기다’가 아니라 ‘생기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한데, 2행의 ‘흔싱 緣연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에서 볼 수 있듯 이 작품의 화자는 님과 맺었던 인연이 한시라도 끊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으며,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1행에서 언뜻 제시된 존칭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님과 나의 인연은 ‘하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보증해 준 것이어서 화자가 당면한 현재의 이별은 6행의 ‘므스 일로’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화자로서는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점은 〈사미인곡〉의 한역본을 참고하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해당 구절을 배와(坯窩) 김상숙(金相肅, 1717~1792)과 연경재(硯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각각 “此身之稟生兮”(김상숙, 『思美人曲帖』)와 “余始稟質”(성해응, 〈思美人曲解〉)로 한역해 놓았다. 주지하듯 ‘稟’은 ‘生’과 ‘質’을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이므로, ‘이 몸’과 ‘삼기실 제’ 사이에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4행의 ‘노여’는 어떠한가? ‘노여’는 “거듭하다”는 뜻의 ‘ㄴ외다’가 연결어미 ‘-아’와 결합한 ‘ㄴ외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동사의 활용형이 부사로 굳어진 경우이다. ‘ㄴ외야’는 그 후 ‘ㄴ외야 > 노외야/노의여/ㄴ외여 > 뇌야/뇌여 > 노야/노여’와 같이 일정한 형태 변화를 겪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여’를 현대어로 옮기면 ‘거듭’, ‘다시’ 정도가 된다.

현행 교과서의 경우 ‘노여’를 ‘다시’ 또는 ‘전혀’로 풀고 있지만 교과서에 준하는 여러 학습 교재들에서는 주로 ‘전혀’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이는 아마도 ‘다시 없다’는 말보다 ‘전혀 없다’는 말이 현대의 국어생활

10) 예를 들어, 『2021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EBS교육방송 편집부, 2020: 54-55)에서 ‘노여’에 대한 어석은 ‘전혀’로 제시되어 있다.

에서 좀 더 자주 쓰인 탓일텐데, 의미상으로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노여’와 ‘전혀’는 서로 다른 어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혀’의 경우 15세기에는 “오로지”의 뜻으로 주로 쓰이다가¹¹⁾ 후에 오늘날과 같이 “도무지”, “완전히”의 뜻으로도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사미인곡>이 창작될 당시의 언어적 질서를 고려하면 ‘노여’에 대한 현대역으로는 ‘전혀’보다는 ‘다시’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한편, 6행의 ‘외오’는 ‘외우’의 옛말로 사전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 “외파로 떨어져”와 “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두 개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가 핵심인 셈인데, <표 1>에서 보듯 현행 교과서에서는 ‘외로이’, ‘외롭게’라고 풀고 있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인한 2차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석은 바로 뒤의 ‘두고’까지를 염두에 둘 때 상당히 어색하다. 해당 구절을 ‘외로이/외롭게 두고 그리는고’로 새기게 되면 ‘외로이 둔다’는 말 자체의 어색함에 더해 ‘외로이’의 주체가 ‘님’인지 화자인지 불분명하게 된다. 사전의 설명 가운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멀리’가 적절할 듯한데, 마침 <사미인곡>에 대한 3편의 한역본 모두가 구절에서 ‘遠’을 쓰고 있다.¹³⁾

하나 더, 부사 ‘외오’의 의미와 관련해 우리는 용언 ‘외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전혀 이 東山은 남기 도홀씨 노니는 싸히라 (『석보상절』 6: 24)

專門은 전혀 혼 그를 비홀씨라 (『능엄경언해』 1: 22)

12) 디식이 전혀 업고 얼굴이 고이흐며 (『계축일기』 하: 23)

한편, 1764년에 필사된 김상숙의 『사미인곡첩』에 ‘노여’가 ‘전혀’로 바뀌어 있는 것도 ‘전혀’의 의미 확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遠離居兮勞思”(김상숙), “遠離徒感傷”(성해응), “老來何事遠別離”(정도)

(8) 가. :외·니 ·올흐·니 이·괴·니 계·우·니 (『월인석보』 1: 42)

나. 毫釐·만 그르·면 千里 :외·니 (差之毫釐면 失之千里흐·니) (『원각경언해』 2-2: 18-19)

중세 국어에서 부사 ‘외오’는 “그릇, 잘못”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용언 ‘외다’와 관련이 있다. 어간 성조가 상성을 지닌 ‘외다’는 (8가)에서처럼 “그르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도, (8나)에서처럼 “잘못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 현대 국어 ‘외우’가 지닌 두 번째 의미, 즉 “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중세 국어 ‘외다’의 이러한 동사적 용법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외오’가 “멀리”의 의미를 갖게 된 이유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7)의 ‘외오’를 ‘멀리’로 파악하게 되면 단어의 원의에도 보다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넘어 계신 천상과 화자가 있는 지상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이해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9) 늘그니는 父母 갓고 얼우는 母 곧튼니

가튼디 不恭하면 어디가 다랴고

랄로서 ㅁ지어시든 절흐고야 마로랑이다

- 〈오륜가〉(『무릉속집』(국립중앙도서관본))

(9)는 주세붕의 〈오륜가〉 중 6번째 작품이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수능 및 중등 임용시험에 종종 출제되며,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작품이어서 문학교육 현장에서의 비중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작품의 종장에 대한 어석은 고전시가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해서 국어학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해당 구절에 대해 확인 가능한 어석만 해도 ①날마다 만나거든(최재남,

1997: 231), ②나이로써 많으시거든(박을수, 1992: 282), ③나로서 맞이하게 되면(김명준, 2018: 142) 등으로 다양하다. 문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재나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에서 이 작품을 다룰 때에도 대개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기한 어석들은 모두 약간씩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①은 ‘랄’을 ‘날[田]’로, ‘로서’를 ‘마다’로, ‘므지어시든’을 ‘맞이어시든’으로 본 것인데, ‘랄’을 ‘날’로 본 것은 용례가 있어서¹⁴⁾ 무방하다고 해도 ‘로서’를 ‘마다’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므지어시든’에 들어있는 선어말어미 ‘-시-’가 ‘만나거든’이라는 현대어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③의 경우 ‘랄’을 1인칭 ‘나’로, ‘므지어시든’은 ①과 마찬가지로 ‘맞이어시든’으로 본 것인데, 이 작품의 2수에서 ‘랄’이 1인칭의 의미로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¹⁵⁾ ‘랄’을 ‘나’로 본 것은 가능하다 하겠다. 그러나 “나로서 맞이한다”는 의미가 당시의 언어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어색하며, ‘므지어시든’ 역시 이를 “맞이하게 되면”으로 옮김으로써 선어말어미 ‘-시-’의 존재가 무시되고 말았다.

②는 ①과 같이 ‘랄’을 ‘날[田]’로 보면서도 그 의미를 ‘나이’로 푼 것인데, 사실상 ‘나이’는 ‘날[田]’과 무관하며 중세 국어 ‘나ㅎ’으로부터 온 단어이다.¹⁶⁾

(10) 가. 아드리 아비 나해서 곱기곰 사라 (『월인석보』 1: 47)

나. 須菩提는 나과 德과 한 사르미게 노폴썩 (『법화경언해』 2: 176)

14) 플이 이서 뜰희 나 열다섯 칼로써 전에 날마다 흐 님식 나고(有草 | 生庭하야 十五日以前에 日生一葉호고) (『십구사략언해』(1832) 1: 11a)

15) 아버님 랄 나ㅎ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오륜가〉 2수)

16) 참고로 홍윤표(2007)에서는 ‘낱다’의 어간 ‘낱-’에서 파생된 명사 ‘낱’이 ‘나이’의 말뿌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 나 저믄 弟子와 沙彌 小兒를 즐겨 치디 말며 (『법화경언해』 5: 18)

중세 국어 ‘나ㅎ’은 그 형태가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ㅎ’으로(10가, 10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로(10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ㅎ’과 같이 ‘ㅎ’을 보유했던 단어들은 근대 국어 시기를 지나며 차차 ‘ㅎ’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9)의 ‘랄로써’를 “나이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어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 어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어석은 무엇인가?

주지하듯 이 작품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16세기 사람과 문인 지식인이었던 작가 주세붕(1495~1554)은 개인적 일상의 규율과 검속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비된 유교국가 조선을 꿈꾸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의 일환으로 그들은 백성들이 시공간의 제한이나 지적 수준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향유 가능한 교화의 수단으로 우리말 노래인 ‘시조’를 활용했던 것이다(하윤섭, 2014). 창작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어의 배치라든지 통사적 요소의 선택 등에 있어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당 구절은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당대의 일상어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우선 ‘랄’을 ‘날’, 즉 1인칭 대명사 ‘나’가 ‘ㄹ’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 ‘ㄹ’이 덧난 형태로 파악하고자 한다.¹⁷⁾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17) ‘나, 너, 누, 이, 그, 더’ 등과 같은 1음절 대명사들이 ‘ㄹ’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날 때 ‘ㄹ’이 덧나는 현상은 체언의 곡용과 관련된 중세 및 근대 국어의 특징이다.

날로 이제 보게 흥딘댄(令我로 今見인댄) (『능엄경언해』(1464) 2: 46)

내 널로 더불어 言호리라(予 與爾言호리라) (『논어언해』(1590) 4: 30)

내 놀로 다투호야 노니려노(吾與誰遊衍) (『두시언해』(1481) 24: 35)

일로써 天下엿 사랴미 다 그 효성을 아니라(絲是로 天下 皆知其孝호니라) (『변역소학』(1518) 9: 35)

내 글로 인호야셔 싱각호니(某 因自思) (『변역소학』(1518) 10: 27)

덜로 平等호 믋스믋로 施케 호니(使彼로 等心而施케 호니) (『능엄경언해』(1464) 1: 33)

작품의 2수에서 이미 ‘날’을 두 번이나 ‘랄’로 표기했음이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로셔’와 ‘므지어시든’이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11) 가. 하늘로셔 설흔두 가짓 祥瑞 누리며 (『석보상절』 6: 17)

나. 열두 살로셔 아리로 어린 겨집을 通奸하면 (『경민편언해』 15)

(11가)에서 볼 수 있듯이 ‘로셔’는 본래 두 보조사 ‘로’와 ‘셔’가 결합해 “로부터”라는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던 복합 조사였다. 그후 이러한 쓰임이 계속되다가¹⁸⁾ 17세기 중반쯤 “비교”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11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범위의 시작이라는 말은 곧 끝이 있다는 말이어서 여기에는 비교급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11나)의 ‘열두 살로셔 아리로’는 본래 “열두 살부터 아래로”라는 의미이겠지만, 이러한 시작의 의미가 “열두 살보다 아래로”라는 비교의 의미로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9)의 ‘랄로셔’는 “나로부터”에서 발달한 “나보다”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가. 兄 믄 형(『훈몽자회』(초간) 상: 16)

나. 열히 므디어든 형으로 섬기고 다스 히 므디어든 엇게 골와 가디 저기
미조차 갈 디니라 (『변역소학』 3: 25)

(12가)는 한자 ‘兄’의 훈이 고유어로 ‘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12나)의 ‘므디어든’은 (9)의 ‘므지어시든’과 구개음화 유무와 선어말어미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흡사한데, 그 원문이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

18) 중간에 “지위, 자격”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본리 나_ㄴ내로브터 옛는 臣下로셔 堯舜_ㄴ티 다스리샤물 맞나스 와 (『변역소학』 (1518) 6: 27)

것'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때의 '든' 역시 "연장자"의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9)의 '므지어시든'은 명사 '든'에 서술격 조사 '이-', 그리고 어미 구조체 '-어시든'이 차례로 결합한 어형으로 파악된다.¹⁹⁾ 따라서 그 의미는 "연장자이시거든" 또는 "형이시거든" 정도가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오륜가> 6수의 '탈로서 므지어시든'은 "나보다 연장자이시거든"으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어석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파악되어야 이어지는 '절흐고야 마로령이다'와의 호응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는 객관적이고 치밀한 어학적 분석이 좀 더 정확한 문학적 해석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해석적 선택지의 다양성 확보

현대문학 작품을 읽을 때 텍스트 언어의 해독 작업은 흔히 생략되거나, 독자가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을 만큼 투명하게 받아들여지거나, 대체로 간략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김홍규, 2002: 309) 그럼에도 해석의 결과들은 해석자의 주관에 거치는 일이어서 동일한 해독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산출되곤 한다. 그런데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 텍스트 해석의 과정에서 어석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석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어석적인 유동성에 의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양산되기 마련이다.

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좀 더 나은 해석'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해석'이어서 고전문학 텍스트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석적인 유동성은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럽다.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

19) 이때 어미 구조체 '-어시든'은 본래 선어말어미 '-시-'와 불연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말어미 '-거...든'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는 서술격 조사 뒤에서의 'ㄱ' 탈락 현상까지 보인다는 점에서도 중세 국어적인 특징을 지닌 어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석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해석의 가치는 반감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점은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지하듯, 7차 교육과정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한 ‘문학능력’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어능력’이라는 상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어능력’이 국어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대명사로서, 창조적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문화적 소양 등의 의미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갖는다는 사실(서영진, 2015: 283)에 비추어보면, ‘문학능력’ 역시 문학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문학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진대, 고전문학 작품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정적인 어석에 기반하여 권위적인 해석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경쟁적인 어석을 놓고 각각의 어석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 보는 것은 국어능력의 신장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고전문학 작품은 이미 그 자체로 유의미한 교육적 소재로 기능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학연구의 영역에서 다양한 어석은 ‘해결’해야 할 대상이지만 문학교육 내지는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다양한 어석은 ‘활용’ 가능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13)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靑山별곡〉(『속악가사』(봉좌문고본))

너무나 익숙한 <청산별곡>의 1연이다. 여기서 어석적 쟁점은 ‘살어리랏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현행 교과서의 어석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산별곡> ‘살어리랏다’의 교과서 어석

	‘살어리랏다’
방민호 외(2019)	① 살겠노라 ② 살리로다 ③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정재찬 외(2019)	① 살리라. 살고 싶구나 ②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철우 외(2019)	① 살고 싶어라: 소망 ②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와 아쉬움 ③ 살리라: 의지

〈표 2〉에서 볼 수 있듯 현행 교과서에서는 ‘살어리랏다’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3가지 어석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어석이든 청산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지만, ‘-리랏다’에 대한 어학적 정보가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모종의 한계를 지닌다.

익히 알려져 있듯, 이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독법은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중(농민)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노래’ 혹은 ‘자기 뜻을 펼 수 없어 고뇌하는 지식인의 노래’,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노래’ 등이며(방민호 외, 2019: 182), 시대적 배경 또한 ‘고려 후기’라는 환난기로 특정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노래가 임금 앞에서 불렀다는 것이니, 좀 더 과감하게 말해 보자면 <청산별곡>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가리키는 바는 결국, 왕의 실정(失政)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의 노래를 왕의 면전에서 연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은 선뜻 가정하기가 쉽지 않은바,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다른 방식의 독법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어학계(장윤희, 2002: 386~387)에서는 ‘살어리랏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4) 가. ‘살어리랏다’는 ‘살+어(←거)+리+랏(←닷)+다’로 분석된다. 이때 ‘살-’은 동사 어간, ‘-어-’와 ‘-리-’는 각각 확인법과 추측법의 선어말어미, ‘-랏-’은 두 형태소의 융합형 ‘-닷-’(←더+웃)의 변이형, ‘-다’는 평서법 어미이다.

나. ‘-리랏다’는 선행절에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제시”하는 가정법적인 ‘-던댄’이 통합하여 접속된 접속문의 후행절 서술어에 통합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살어리랏다’의 앞에는 과거에 이미 실현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한 “만일…했더라면” 정도의 내용이 담긴 선행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살어리랏다’에 포함된 형태소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는 “(과거의 어떤 상황과 반대 상황이 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살았겠구나/살 수 있었겠구나.” 정도의 의미로서 과거 사실과 반대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리랏다’의 용례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치밀한 어학적 분석을 거쳐 도출된 (14)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확보할 수 있다.²⁰⁾

첫째, 1연에서 화자는 현재 ‘청산’에 없다. 현재 청산에 있으면서 청산으로 오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란 가정하기 어렵다. “과거의 어떤 상황과 반대 상황이 되었더라면 틀림없이 살았겠구나.”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청산에 살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읽힌다.

20) 아래 세 단락은 하운섭(2021: 14-15)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화자는 현재 청산으로의 이동을 갈망하고 있다. 청산으로의 이동을 갈망하게 한 원인은 현재에 있을 텐데, 화자가 당면한 현재의 결핍은 그 결핍을 해소할 수도 있었을 과거의 어느 순간을 후회하게 하는바,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화자는 현재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하지 못했던 일은 지금도 하기가 어려우니, 새와 함께 밤새도록 울부짖는 2연의²¹⁾ 모습은 청산으로의 이동을 두고 화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갈등과 고뇌의 흔적으로 보인다.

셋째, 화자는 과거에도 청산으로의 이동을 떠올린 적이 있었으며,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산으로의 이동을 두고 갈팡질팡하게 했던 가혹한 삶의 위기가 화자에게는 그때와 지금, 최소 2번 이상은 있었다는 것이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삶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청산’과 비슷한 성격의 공간을 꿈꾸곤 하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자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은 자주 있었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또한 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살던 곳을 등지게 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만 큼은 분명하다.

작품 전체를 통해서야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긴 하지만, ‘-리랏다’에 대한 어학적 정보로 말미암아 확보하게 된 상기의 사실들은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의 화자는 세속에서의 소외(1~2연) → 청산으로의 이동(3연) → 청산에서의 권태(4~5연) → 바다로의 이동(6연) → 세속에서의 소외(7~8연)를 거쳐, 한 차례의 권태를 경험한 곳과 성격상 유사한 곳(‘바다’)에의 도착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존재”라는 유명한 격언을 떠올려 보면, ‘욕망 → 소외 → 이동 → 충족 → 권태 → 욕망 ……」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화자의 모습은 이 노래를 궁중에서 들었을 고려

21) “우려라 우려라 새여 / 자고 니러 우려라 새여 / 널라와 시름한 나도 / 자고 니러 우니로라” (〈청산별곡〉 2연)

의 임금에게도, 청산 안에서 들었던 조선의 문인 지식인에게도,²²⁾ 심지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정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청산별곡>은 ‘고려 후기’라는 특정의 역사적 시공 속에서 걸어나와 인간이란 존재의 본원적인 속성과 불가피한 숙명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바, 시어 하나 하나에 대한 정밀한 탐색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접근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학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소홀히 여길 수 없다. 문학적 해석이 언어 사용 측면과 무관할 수 없으며, 좋은 문학적 해석이란 어학적 측면의 지지를 받을 때 그 의미가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 물론, 어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해석 가능성과 방향성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루어진 문학적 해석은 적어도 어학적 바탕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기초부터 재점검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의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IV.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

1. 연구 차원: 상호 보완과 협력의 기회 확대

국어사와 고전문학은 국어국문학의 체계 안에서 국어학과 국문학의 영

22) 남효온(1988: 116)의 「松京錄」. “이때 서쪽에서 남북의 두 성거암을 굽어보다가 성거산 상봉에 올라갔다. 남풍이 매우 거세고 암석이 매우 험하여 발을 땅에 붙일 수 없으니, 정중[李貞恩]이 크게 두려워하여 굳이 우리들을 끌고 내려가려 하기에 나와 자용[禹善言]이 따랐다. (중략) 창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니, 마치 신령이 기운을 일으키는 듯한데, 정중과 자용이 크게 기뻐하였다. 정중이 <청산별곡>의 첫 번째 곡을 타니, 주지승인 성호(性浩)도 크게 기뻐하며 포도즙을 걸러 내와 우리들의 마른 목을 적서 주었다.”

역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별개이지만, 분류의 기준을 시간으로 삼을 경우 하나의 범주 안에 동서(同棲)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국어사 자료와 고전문학 텍스트는 산출 시기가 ‘전근대’라는 점에서 일정한 역사성을 공유하며, 이는 곧 두 분야가 상호 보완과 협력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경향은 이와 같은 친연적 관계에 부합할 만큼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특히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이원화된 분과 학문 체제 하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는 양주동, 김완진, 박병채 등 선학들의 어석을 상수로 둔 상태에서 작품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국어사 연구자 역시 간행 연대와 관련 기록이 확실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제법 오래된 관행이어서 동일한 고전문학 텍스트를 두고 두 분야의 연구자가 함께 고민하는 일은 근간에 우스웁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 이를테면 다

(15)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 제

一枝春心을 子規] 야 아라마는

多情도 病이냥 혀여 줌 못 드리 혀노라 (『청구영언』(진본) #365)

이조년(1269~1343)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이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확인된 이본만 하더라도 73종에 달하며,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김홍규·이형대·이상원·김용찬·권순희·신경숙 외, 2012: 827~828) 작품 전체가 약간의 변개도 없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고등 국어 교과서에는 부제재로 2회가 수록되었으며, 문학 교과서에는 본제재로 1회가 수록되어서 수치상으로는 따지자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 작품이 문학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확고한 위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상기한 작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장이다. 문학교육 현장에서 두루 통용되는 중장의 어석은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나마는’(EBS교육 방송 편집부, 2020: 47)이며, 이는 고전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중장에 대한 이와 같은 어석은 작품 전체의 주제를 도출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봄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느끼는 애상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애상감’이 환기하는 의미역이 너무 넓어서 애상감을 유발한 원인이 봄밤의 아름다운 풍경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박진호(2017: 29)는 한글박물관 소장 김천택 편 『청구영언』을 국어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중장의 ‘아라마는’에 대해 “문법적/표기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건만, 알지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즉 과거에는 一枝春心을 子規가 모른다고 해석해 왔으나 거꾸로 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어석은 동일 가집에 전하는 다른 작품들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가. 섬섬고 놀라올슨 秋天에 기러기로드

너 느라 나을 제 님이 分明 **아라마는**

消息을 못 밋쳐 밋지 우러 벨만 흐느다 (『청구영언』(진본) #441)

나. 越相國 范少伯이 名遂功成 못흐 전에

五湖煙月이 죠흔 줄 **아라마는**

西施를 싯노라 흐여 느저 도라가니라 (『청구영언』(진본) #447)

(16가)와 (16나)는 앞서의 (15)와 동일한 문헌에 실려 있다. 이는 곧 (15)의 ‘아라마는’과 (16가), (16나)의 ‘아라마는’이 같은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상기한 두 작품 모두 해당 시어는 “알았겠지만” 정도로 현대역할 수 있으며, 확정에 가까운 추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것

은 (16가)의 경우 기러기가 전령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과 ‘아라마논’ 앞에 ‘分明’이라는 부사어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나) 역시 월나라 재상인 범려가 오나라를 무너뜨리기 전에 대단한 명승지인 五湖의 煙月이 좋은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이때의 ‘아라마논’은 (16가)와 같은 용례에 해당한다.²³⁾ 이렇게 볼 때, (15)의 ‘아라마논’도 “알겠지만/알건만/알지만” 정도로 풀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석적 견해가 종래의 주류적인 해석을 달리 보게 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15)에 등장하는 ‘자규’는 동아시아 문학권에서 ‘원망, 억울, 울분, 애절’ 등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시어로서, 그것이 ‘이화’라는 특정의 식물과 ‘삼경’이라는 특정의 시간대를 만났을 때 이별한 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²⁴⁾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라마논’에 대한 통상적인 어석인 ‘알겠느냐마논’은 다소 어색하다. ‘春心’을 남녀 간의 연정으로 볼 때, 춘심의 보편적 상징물인 자규를 향해 춘심을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대의 문학적 관습을 떠올릴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3) 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집에서도 해당 시어는 제법 많이 보이는데, 모두 “알았지만”, “알지만”, “알겠지만”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뉘라셔 范亞父를 지혜 닛다 니르든고 / 霸上에 天子氣를 辯然이 아라마논 鴻門宴 갈춤에 舉玉玦은 무음 일고 / 不成功 疽發背死히니 뉘 닻시라 호리오(『영언』(규장각본) #297), 雪月이 滿窓히니 브툼아 부지 마라 / 曳履聲 아닌 줄은 判然이 아라마논 / 글입고 아쉬운 只 음에 형혀 긴가 호노라(『가곡원류』(동양문고본) #392), 離別 설운 줄을 織女야 아라마논 / 烏鵲橋邊에 여희노라 지는 눈물 / 人間에 구즌 빗발 되야 님 못 가게 호여라(『시여』(김씨본) #405)

24) 다음의 시조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몸이 식여져서 접동새 녀시 되야 / 梨花 흰 柯枝 속넙헤 켜엿다가 / 밤중만 술하져 우러 님의 귀에 들리리라(『청구영언』(진본) #368), 글여 사지 말고 이 몸이 곳의 죽어 / 梨花一枝에 蝶蝶새 녀시 되야 / 님 자는 碧紗窓 外에 울어 뵈까 호노라(『해동가요』(일석본) #385)

그런데 ‘아라마는’의 어석을 ‘알건만/알지만’으로 푼다고 할 때 종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건마는’의 사전적 정의가 “앞 절의 사태가 이미 어떠한지 뒤 절의 사태는 이러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기대가 어그러지는 데 대한 실망의 느낌이 비친다.”임을 감안하면 자규가 아는 춘심을 모르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자규를 제외하고서 이 작품의 주체인 화자 역시 ‘흥노라’에 내포되어 있는 선어말어미 ‘-오-’의 쓰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종장 1~2음보의 “多情도 病이낭 흥여”를 감안할 때 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객체의 존재는 여기서 중요하다. 자규와 ‘나’의 공통점은 둘 다 그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에게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규도 알고 나도 아는 춘심을 알지 못하는 이는 화자에게는 곧 ‘님’이 아니겠는가?²⁵⁾ 종장의 ‘아라마는’ 다음에 ‘님은 모른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일지춘심을 자규도 알지만님은 그것을 모르는지 돌아오지 않으며, 그런님을 간절하게 그리

25) 임재욱(2017) 또한 박진호(2017)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고의 여지를 갖는다. 첫째, 논자는 ‘子規」야 아라마는’에 대해서 “일지춘심을 자규는 잘 알지만 나는 모른다네”로 풀었으나 종장의 내용은 분명히 ‘나’ 역시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봄밤이 환기하는 보편적 정서는 동아시아 문학권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多情’한 ‘내’가 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봄의 정취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인지적으로 알고 모르는 게 아니다. 둘째, 논자는 ‘춘심’을 ‘봄의 정취’로 해석하였지만 이는 ‘戀情’의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으며, 그것이 ‘子規’와 결부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논자의 주장과 같이 ‘춘심’의 의미를 ‘봄의 정취’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장의 ‘多情’을 복돋우는 배경이 되므로 이를 ‘多情’에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논자는 ‘多情도’에 쓰인 보조사 ‘도’를 해석하면서 이를 “자규와 자아의 동병상련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봤는데 이때의 ‘도’는 일반적으로는 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多情’이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같은 의외의 상황에서는 병이 될 수도 있음을 반어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말미암아 “자규와 자아가 동병상련의 상황 혹은 물아일체의 경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규와 화자가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처지의 유사성 때문인데, 논자의 주장과 같이 “일지춘심을 자규는 잘 알지만 나는 모른다네”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이에 반한다.

위하는 연장선상에서 종장의 자조 어린 애소(哀訴)가 전개되는 것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상 자연스럽다.

이러한 해석은 어석적인 측면에서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정합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애상감’의 실체가 아름다운 봄밤의 풍경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님과 이별한 화자의 애달픈 처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리한 논의에 대한 결론치고는 허망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들은 이러한 사례가 국어학과 고전문학이 상호 보완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정확한 어석과 새로운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가 유관 학회의 주도를 통해서든 연구자들 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든 좀 더 빈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어사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고전문학 작품 역시 어석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섬세해져야 할 작품들이 여전히 많으며, 이는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하에 온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차원: 어석과 맥락의 횡단을 통한 국어능력의 신장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긴 하나, 국어사교육과 고전문학교육의 상위 범주를 문법교육과 문학교육으로 잡는다고 할 때, ‘문법에 대한 교육’인가 ‘문법을 통한 교육’인가를 두고 유의미한 논쟁이 벌어졌던 때를 우리는 알고 있다. 문학교육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니, 교육적 소재로서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자 모두 상기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전자에서 후자로 부단히 변모해 왔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과정에서 “국어사적 지식을 세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국어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113), “한국 문학의 전통이나 특질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작품 전체에 대해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발

회하도록 하는 데 평가의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129)라는 유의사항을 특기하고 있는 것은 국어사교육과 고전문학교육 안에는 분야의 특성상 지식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경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고전문학 텍스트에 내재한 국어사적인 요소들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학습자의 국어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소재로 기능할 수 있음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17) 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梅花는 어니 곳에 띄엿느고

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 (『청구영언』(진본) #7)

목은 이색(1328~1396)의 작품으로 알려진 시조이다. 『고시조대전』(김홍규 외, 2012)이 수록한 153종의 가집 가운데 이 작품은 절반에 해당하는 76종의 가집에 실려 있을 정도로 조선 후기 가창 공간에서 대단히 유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에 새롭게 재편된 시조의 연행 환경에서 정몽주의 〈단심가〉 다음으로 많이 소환될 정도로 대중적인 유행을 구가하였으며(이형대, 2008: 284~286), 10여 차례의 교육과정 변천에도 불구하고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왔다. 어석적인 측면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초장의 ‘즈자진’인데, 현행 교과서에서는 해당 시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 3〉〈백설이 즈자진 골에〉의 교과서 어석

	‘즈자진’
최원식 외(2019)	① 녹아 없어지다 ② 자욱하다, 가득하다는 의미도 있음

여기서는 ‘즈자진’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2가지 의미를 모두 명기해 놓고 있는데, 현전하는 국어사 자료에서 2가지 의미에 대한 용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 가. 水涸地 물 쉬이 줏는 싸 (『역어유해보』 4)

나. 病이 즈즈며 苦惱 | 즈자 범그리 機織이 잇는 듯하야(數病數惱하야 縣然 若有機織) (『능엄경언해』 7: 4)

다. 大川 바다 한가온대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싸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믄디 四面이 거머어득 저믄 天地寂寞 가치노을 췌는디 水賊 만난 都沙江의 안과 (『청구영언』(진본) #572)

(18가)는 <표 3>의 ①에 해당하는 용례로, ‘줏’은 한자 ‘涸’에 해당하며, 기본형은 동사 ‘줏다’(유창돈, 1984: 640)이다. 참고로 현대국어 ‘줏다’는 “액체가 속으로 스며들거나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다.”를 첫 번째 뜻으로, “거친 기운이 잠잠해지거나 가라앉다.”를 두 번째 뜻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를 (17)의 ‘白雪이 즈자진’과 연결해 보면 두 번째 뜻이 이 구절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나)는 <표 3>의 ②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즈즈며’와 ‘즈자’ 모두 원문의 ‘數’(자주 삭)을 언해한 것으로 기본형은 형용사 ‘줏다’(한글학회, 1992: 5362)이다. 『능엄경언해』가 15세기 문헌임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여러 차례로 거듭되는 간격이 매우 짧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자옥하다, 가득하다”는 뜻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18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설시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뵈헤~>의 중장에 해당하는 (18다)에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부서진 상태에서 순탄하던 일기마저 급변하는 상황으로,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는 “안개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

도로) 자옥한 날씨에”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소개해 놓은 두 가지 어석은 관련 용례들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형도 동일하여 둘 중 어느 하나를 ‘즈자진’에 대한 어석으로 보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작품 해석에 활용하는 대신 이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준하여 ①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백설’의 의미를 ‘고려의 유신’으로 한정시킨 후 백설이 녹아 없어지는 시적 사태를 고려의 충직한 신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역사적 실상과 등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초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백설이 환기하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소멸과 구름이 환기하는 가변적이고 혼탁한 이미지의 부상으로 선명하게 대립된다.

그렇다면 ②의 어석을 적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이 해석은 ①의 어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 가지 의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白雪이 즈자진 골에’를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로 풀게 되면 이는 곧 날씨가 이전에 비해 따뜻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름이 험하다는 것은 곧 있으면 다시 눈이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될 경우 초장 전반부의 이미 내린 눈과 후반부의 앞으로 내릴 눈이 각각 환기하는 바를 서로 다른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 해석적 부담을 안게 된다. 전자가 고려의 유신이라면, 후자는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세력을 가리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②를 적용하여 ‘白雪이 즈자진 골에’를 “백설이 자옥한 골짜기에”로 풀게 되면 이러한 부담은 경감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마저 험하다는 것은 이 눈이 당분간은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로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최홍원, 2016: 248), 이러한 해석 하에서 초장이 가리키는 바는 사태 해결의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적 화자의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초장의 해석은 중장과도 거부감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초장에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을 두 겹의

장치로 마련해 놓은 터여서, ‘반가온 梅花는 어니 곳에 피엿느고’에는 매화를 기다리는 이의 달뜬 희망보다는 어느 곳에서도 매화가 피기 어려울 것이라는, 참담한 현실 인식에서 기인한 좌절감과 절망감이 묻어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른다고 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백설’에 부여된 관습적 이미지이다. ①의 어석은 맑고 깨끗하다는 백설의 통상적인 이미지에 맞춰 이를 ‘고려의 유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고전시가 작품들 중에는 ‘백설’을 부정적인 존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예컨대 <찬기과랑가>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눈[栢史叱枝次高支好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갈이여(김완진 해독)], 성삼문의 작품으로 알려진 <이 몸이 죽어 가서~>의 종장에 등장하는 눈[白雪이 滿乾坤할 제 獨也靑靑히리라]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얼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를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백설’에 부여된 관습적 이미지 역시 작품에 따라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즈자진’에 대해 제기된 어석들은 이 작품의 해석에 모두 관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서로 다른 해석들은 각각 그 나름의 이점을 보유하게 된다. 그럼에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과 관련된 해석만을 고집하는 일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어능력의 신장’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국어능력’이 가리키는 바가 국어지식에 대한 함양보다 국어를 통한 잠재된 역량의 계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즈자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의 여부보다는 제시된 복수의 경쟁적인 어석을 작품에 적용할 때 작품의 전체적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부대 자료의 부재나 부족으로 인해 작품 해석의 과정에서 어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작품들(대표적으로 고려속요)의 경우, 국어능력의 차원에서 보자면 유력한 하나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작품들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전문학교육의 현장에서는 하나의 어석과 그에 따른 해석만을 제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가능한 어석적 선택지와 그에 따른 가능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어석적 선택지의 마련과 가능한 해석의 모색을 위해서도 국어사와 고전문학 간의 협력은 지금보다 좀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전문학 텍스트는 현대문학 텍스트에 비해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는 텍스트의 산출 조건이 판이하게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데, 고전문학 텍스트 중 상당수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야 문자로 기록된 것들이어서와 전, 오기, 변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기록자가 일치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기록의 과정에서 있었을 적지 않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심지어는 작자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²⁶⁾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누적된 결과물인 탓에 판본도 다양하고, 표기 방식도 제각각이며, 남아 있는 자료들의 물리적 상태 역시 단일하지 않다.

상기한 문제들은 한 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텍스트를 먼저 통제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인데, 주지하듯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先本과 善本の 문제’ 또는 ‘善本과 異本の 문제’라는 큰 틀 안에

26) 예컨대, 정극인의 <상춘곡>이 그러하다. 정극인이 15세기 인물임에 비해 <상춘곡>이 실린 『불우현집』의 초간본은 18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이어서 둘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멀다. 사실, 이 작품은 학계의 시비와는 별개로 문학교육의 현장에서는 특별한 의심 없이 정극인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 자체의 문제나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콘텍스트를 고려할 때 정극인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 독립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필자들은 문학연구의 결과가 문학교육의 결과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 수록 작품의 저본을 선정하는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고전문학 텍스트가 교과서에 수록된 상태를 보면 한 편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판본들이 뒤섞여 있거나 원전과는 다르게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선본(先本/善本) 대신 후대본이나 이본들이 실려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철의 <사미인곡>은 현전하는 3개의 판본인 이선본, 성주본, 관서본이 혼재되어 있는데(방민호 외, 2019: 194-197),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판본은 그것이 간행될 당시의 언어적 질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사설시조 <一身이 스자 흥엇더니~>의 경우 중장의 ‘琵琶 것튼 蟬蟻 샷기 使令 것튼 등에 어이’(『원국』 #664)에서 원전의 ‘蟬蟻’를 ‘빈아(蟬蟻)’로 잘못 옮겨 적었으며(이승원 외, 2019: 199), 동일한 실수를 뜻풀이에서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²⁷⁾ 또한 ‘등에 어이’에서 ‘어이’에 대해서는 풀이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어이딸(母女)’, ‘어이아들(母子)’의 용례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 “어미”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며, ‘등에 어미’가 ‘蟬蟻 샷기’의 대구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고전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할 때 주안을 뒤야 할 지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라는 매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요소들의 준수가 좀 더 완전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더해 원전의 표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난해 어구에 대한 뜻풀이의 형태 등에 대해 유관 연구자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7) 이 작품에 대한 동일한 오류가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에서도 보인다(이승원·차충환·김한식·여태천·김지영·김철희 외, 2014: 187).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앞서 우리는 고전문학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의 다층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실상 고전문학 텍스트의 경우 작가가 직접 남긴 판본들이 남아 있는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며, 창작 시기와 기록 시기가 수백 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해서 현전하는 판본들에는 작품이 창작된 시기와는 다른 언어 현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을 부진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고전문학 연구자의 경우 대개는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별반 고려하지 않은 채 작품이 산출된 시기의 언어와 기록된 시기의 언어가 유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말선초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시조 작품들의 경우, 그것이 창작된 시기는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하지만 기록된 시기는 근대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 작품들을 분석할 때 적용해야 하는 어학적인 질서는 전자만이 아니라 후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어사의 관점에서는 어떠한가? 일단 고전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다층성 문제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함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악학궤범』에 소재한 고려속요 작품들만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된 고려시대의 언어와 성종 당시의 언어가 섞여 있어서 성종 당대의 중세 국어에 대한 문법 지식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이현희, 2001). 이는 편찬 시기의 언어적 현상들을 일관되게 간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어사 자료와는 상당히 다른 지점인데, 이러한 지점은 단순히 부족한 자료의 보충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시적인 언어 모습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김유범, 2018: 7)에서 ‘결이 다른’ 국어사 자료로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다층성을 지닌 고전문학 작품들은 지금까지 쌓아 온 국어사 연구의 성과를 적용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 목표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고전문학 작품들에 보이는

언어적 다층성을 고전문학 작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작품들에 나타난 서로 다른 시기의 국어의 모습들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도전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의 결과는 국어사 연구는 물론이고 고전문학 연구까지도 함께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V. 마무리

소통과 협력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참이어서 해당 단어를 내포하는 대개의 주장은 당위적이거나 상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인가? 둘째, 소통과 협력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이점은 무엇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념하면서 ‘보다 나은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옛말의 표기와 문법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만큼 긴요한지와 같은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옛말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가 애초의 목표에 훌륭히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지만, 각각의 분야가 쌓아 온 자산과 경험이 다른 분야의 그것과 공유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어사와 고전문학 두 분야가 실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상호 간의 실천적인 노

력일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두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는바, 국어교육 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로부터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1.10.24.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자료]

- 국립한글박물관(2017), 『靑丘永言 김천택 편』(영인편),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2017), 『靑丘永言 김천택 편』(주해편),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김상숙, 『사미인곡첩』, 서울대 규장각 소장(가람古811.05-J462sm).
김홍규·이형태·이상원·김용찬·권순희·신경숙·박규홍(2012), 『고시조대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남효온(1988), 『秋江集』, 한국고전번역원(편), 『한국문학총간』 16,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박을수(1992), 『한국시조대사전(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성해웅(2001), 『硯經齋全集 1』, 한국고전번역원(편), 『한국문학총간』 273,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극인(1988), 『불우현집』, 한국고전번역원(편), 『한국문학총간』 9,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정철(1988), 『송강별집추록』, 송강유적보존회(편), 『國譯 松江集』, (新編改刊), 대전: 송강유적보존회.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서울: 어문각.

[교육 자료]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2019), 『(고등학교)문학-교사용교과서』, 서울: 미래엔.
이승원·유성호·차충환·김한식·김철희·김형수·김지상·황재진·고은정(2019), 『(고등학교)문학-교사용교과서』, 서울: 신사고.
이승원·차충환·김한식·여태천·김지영·김철희·김형수·김지상·방건희(2014), 『(고등학교)문학』, 서울: 신사고.
정채찬·엄태웅·신현암·이승철·조형주·남궁민(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서울: 지학사.
최원식·박종호·곽기영·박수연·박창현·서경원·송미경·오연경·이삼남·이종은·이종호·전현철·정지영(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서울: 창비교육.
한철우·박호영·이상구·선주원·박신영·이준현·오택환·이강빈(2019), 『(고등학교) 문학-교사용교과서』, 서울: 비상교육.
EBS교육방송 편집부(2020), 『2021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서울: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논저]

- 김명준(2018), 『생각하며 읽는 한국고전시가』, 서울: 다운샘.
김유범(2006), 『「ㅎ」보유 漢字語와 漢字音』, 최남희·정경일·김무림·권인한(편), 『국어사와 한

- 자음』, 서울: 박이정.
- 김유범(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3, 35-57.
- 김유범(2018), 「고려시대 음운과 고려가요」, 『구결연구』 40, 5-27.
- 김홍규(2002),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문혜운(2008), 『문학어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 박진호(2017), 「국어사 자료로서의 김천택 편 청구영언」, 『한국시가학회 제84차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25-116.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 16, 7-33.
- 서영진(2015),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50(1), 272-305.
- 양영희(2009), 「중세국어 교육의 효율적 방안 모색」, 『배달말』 44, 291-314.
- 이현희(1994), 「『악학궤범』의 국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77, 183-206.
- 이형대(2008), 「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한국시가문화연구』 21, 265-293.
- 임재욱(2017), 「〈梨花에 月白하고〉의 의미 재검토 - ‘아라마난’을 ‘알건만’으로 해독한 견해에 의거하여」, 『한국시가연구』 43, 221-244.
-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381-407.
- 최재남(1997), 『사립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 최홍원(2016), 「잘 알면서도, 잘못 알았던 시조 - 시조 담론에서의 오류와 오개념을 찾아서」, 『문학교육학』 51, 235-264.
- 하윤섭(2014), 『조선조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하윤섭(2021), 「부박(浮薄)한 삶에 대한 위안 - 〈청산별곡〉에 대한 재해석」, 『고전과 해석』 33, 7-34.
- 홍윤표(2007), 「나이」의 어원, 국립국어원, 검색일자 2021. 8. 12., 사이트 주소 <https://www.korean.go.kr/nkview/onletter/20070101/04.html>.
- 홍중선(2000), 「현대 국어의 시대 구분과 시기별 특징」, 홍중선·도원영·차재은·유혜원·김서형·장혜진·송인성·정경재·정연주(편),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2』, 서울: 박이정.
- Wilson, E. O.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역), 서울: 사이언스북스(원서출판 1998).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

김유범·하운섭

본고는 국어사와 고전문학이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보다 섬세한 문학적 해석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어사와 고전문학은 ‘옛말’이라는 안료와 ‘전근대’라는 캔버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 이를 바탕으로 한 두 분야의 협력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천의 정황들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옛말의 표기와 문법을 이해하는 일이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만큼 긴요한지와 같은 원론적인 문제에 서부터 옛말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어교육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어사와 고전문학 연구의 차원에서도 서로가 가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고가 이러한 발돋움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국어사, 고전문학, 소통과 협력, 옛말, 문학적 해석, 국어능력의 신장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lassical Literatur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Yupum · Ha Yunsub

This study started with the belief that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lassical literature can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education by promoting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n words and texts and by pursuing more delicate literary interpretations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Although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lassical literature share the paint of “archaic words” and the canvas of “pre-modern times,” there are no concrete practices of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m, and there has been no collaboration based on their commonalities.

The present study aimed at an extensive examination of this issue, from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orthography and grammar of archaic words for an understanding of classical literary works, to specific methods to promote the effective appreciation of classical literary works through an enhanced understanding of archaic words. The process of sharing and discussing such information will allow each subject to complement the other's lacunae, and offers a chance to reaching a new dimension regarding research on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lassical literature, as well as improving Korean education. The present study will hopefully serve as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this journe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History,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rchaic Words, Literary Interpretation,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